

광주경총, 이동식 변화혁신아카데미 원장 금요조찬포럼

“혁신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조직문화에서 시작”



지난 17일 광주 서구 올리메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18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이동식 변화혁신아카데미 원장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두려움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조건, '심리적 안정감·규범·소통' 등 제시 페니실린·네모수박 성공사례 소개·끊임없는 도전 주문

“직원들은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 17일 광주 서구 올리메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18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이동식 변화혁신아카데미 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두려움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식 원장은 조직 혁신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심리적 안정감', '명확한 규범',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방식에 집착하는 순간 변화는 어렵다”며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혁신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무소유의 정신을 일깨우는 법정 스님의 ‘우리는 한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바쳐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남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며 “일상적인 타성과 게으름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당부했다.

이동식 원장은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을 통해 높은 제겨된다”며 “기업·조직 내 관행 역시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실패에 대한 관점 전환’을 꼽았다.

하 원장은 “능력 있는 직원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학습하며 동료와 공유한다”며 “실패를 경험하는 조직은 무엇이 안 되는지를 일찍 파악해 정답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 마생물학자이자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연구 중 실수로 방치한 배양 접시에서 포도상구균을 푸른곰팡이가 먹어 치운 걸 확인했다”며 “곰팡이가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플레밍은 그때부터 푸른곰팡이를 연구한 끝에 800배로 희석해도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이동식 원장은 “수박이 등락하는 틈을 끼고 일반 농부에게 판매하는 네모수박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며 “2011년 개그맨 이경규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만든 하안국물 라면 ‘꼬꼬면’이 빨간 국물 라면 일색이었던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다”고 피력했다.

하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도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실수나 실패 사례를 2~3개 선정해 뒤 이력서 형태로 문서 작성을 해야 한다”며 “리더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보인다면, 구성원들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곧 다수의 상식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정답을 모르는 태도로 질문해야 한다”며 “리더가 먼저 변화하면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사회 전체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강연 말미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두려움 없는 조직문화’를 제안했다. 그는 “조직 내 두려움이 가득하면 장기적으로는 인재가 이탈하고 성과가 무너진다”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위계적인 조직문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 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원장은 “누가 팀원으로 있는가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조직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경총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 다음 강의는 오는 24일 광주 서구 올리메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이숙재 영화평론가가 ‘혁신적인 생각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 시동

대형현장 릴레이 캠페인 연말까지 안전문화 확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서구 상무 조각공원에서 이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과 대형 건설현장 소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Safety Link 릴레이 캠페인’ 발대식과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은 끊고, 안전은 잇고’를 슬로건으로 지역 내 대형 건설현장이 ‘안전 바톤’을 이어받는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공사비 8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18개소를 거점으로 오는 12월까지 각 현장별 2주간 집중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별로는 추락·충돌·화재·폭염 등 주요 위험요인을 주제로 안전테마를 설정하고 결의대회, 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사례 공유 등 자체 캠페인을 병행한다. 아울러 무재해기 전달과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현장 참여도를 높이고, 축적된 안전관리 노하우를 지역 전방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전기원제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생명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서구 상무조각공원에서 이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과 대형 건설현장 소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Safety Link 릴레이 캠페인’ 발대식과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존중’ 가치를 공유하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종환 대형건설현장 협의회 회장은 “안전은 지금 실천하고, 될 때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역에서도 고소작업대 협착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건설현장 역시 중대재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공정 속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무너지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안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페트볼 순찰을 강화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동원 광주노동청장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번 캠페인에 대형 현장의 우수 사례를 지역 전방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 원장은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순정 신품 수리”...현대차, 인증중고차 보증 확대

‘워런티 플러스’ 출시...3~12개월까지 기간 선택 가능

현대차가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을 위한 추가 보증 상품 ‘현대인증중고차 워런티 플러스’를 출시한다.

이는 고객이 중고차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보증 연장 상품으로, 기존 인증중고차 기본 보증 서비스에 더해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현대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리 시 고객 자

기부금 없이 재판매가 아닌 순정 신품 부품만 사용해 고객의 구매 후 이용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워런티 플러스’의 보증 범위는 일반 부품, 냉난방 부품, 동력전달 주요 부품, 엔진 주요 부품이다.

고객은 차량 등급과 운행 패턴에 따라 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가격은 차종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네시스, 독일 아우토빌트 평가 ‘최고 브랜드’

뛰어난 품질·안전성·디자인에 가격 경쟁력도 인정

제네시스 브랜드가 최근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빌트의 독자 평가에서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분교독일에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아우토빌트의 평가 결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아닌 일반 독자가 직접 선정에 참여해 실제 시장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5만명 이상의 독자가 참여하며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52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14개의 세부 부문으로 나눠 품질, 디자인, 가격 경쟁력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제네시스는 포르세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전체 최고 영예인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와 럭셔리 부문 최고 브랜드인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동시에 석권했다.

특히 럭셔리 부문에서는 가격 경쟁력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기능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예견된 수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이시현 전무는 “이번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선정은 제네시스가 단기 판매 실적 보다는 브랜드의 기준을 세우는 전라로 유럽에서의 존재감을 차근차근 넓혀간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차별화된 리터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 독일, 영국,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으며, 연내 스페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 제10회 포항 철강 마라톤

2026. 6. 13.(토) 출발 9시
접결 8시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앞

선착순 10,000명 참가 등록 10km·5km

문의 : 마라톤사무국 1600-3949

2026 제10회 포항철강마라톤 이벤트 ‘행복동행 걷기’

- 일시 : 2026. 6. 13.(토) 출발 9시
- 장소 :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앞
- 대상 : 장애인 & 7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아동)
- 코스 : 별도 운영(약 1km)
- 접수 및 기타문의 : 사무국 1600-3949

바다를 넘어 일상을 잇는
해오름대교 위를 달리며
포항 도심과 해안을 한눈에 담아보세요!!